

홍콩 민주화 시위 ‘최루탄’ 진압…수십명 부상

“전인대 선거안 철회·정치 개혁”

시민·학생 센트럴 점거운동 개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마련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단체가 28일(현지시간) 도심 점거 시위에 본격 나선 가운데 경찰과 충돌, 수십 명이 다쳤다.

특히 시위대는 중앙정부와 홍콩당국이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천명한 가운데 집회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홍콩 행정장관 선거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앞으로 본격적인 격화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 시민과 학생들은 이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정부 청사와 입법회(한국 국회격) 부근에서 전인대 선거안 철회와 새로운 정치 개혁 방안 마련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앞서 지난 22일부터 동맹 휴업 중인 대학생들이 정부청사 부근 타마르 공원에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시민단체인 ‘센트럴 점령하라’(Occupy Central·이하 센트럴 점령)가 이날 금융 중심지인 센트럴(中環) 지역 점거 운동을 개시한다고 선언하면서 시위 참가자가 크게 늘었다.

‘센트럴 점령’의 공동 설립자인 베니 타이 이우팅(戴耀廷) 홍콩대 법대 부교수가 센트럴 점령의 첫 단계로 정부청사 점령에 나서겠다고 밝힌 이후 학생과 시민들은 센트럴 지역과 연결된 정부청사 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시위 여파로 센트럴 등으로의 차량 운행이 차단됐으며 정부청사 지하철도역도 봉쇄됐다.

홍콩 당국은 센트럴 점거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다. 링준잉(梁振英) 행정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센트럴 점령에 의한 불법적인 점거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은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했다. 홍콩 경찰이 최루탄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마련한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안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28일(현지시간) 홍콩 금융 중심지인 센트럴(中環)의 주 도로를 점령하자 진압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 시위는 시민단체 ‘센트럴을 점령하라’가 주도했다. /연합뉴스

사용한 것은 2005년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당시 벌어진 한국 농민들의 항의 시위 이후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시위대는 그러나 경찰의 최루탄을 피해 달아났다 다시 도로 위에 집결하는 등 해산을 거부한 채 밤늦게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일부 시위대는 경찰이 정부청사가 있는 홍콩 섬에 집결한 틈을 타 까우룽(九龍)반도로 넘어가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경찰과 시위대 간 충돌로 최소한 26명이 부

상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경찰이 27일 학생 시위대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 4명과 공무원 11명을 포함해 모두 34명이 부상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인대는 지난달 말 2017년 홍콩 행정장관 선거에서 1200명의 후보추천위원 중 절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후보 2~3명에만 입후보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통선거 안을 마련했다.

홍콩의 민주주의와 자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는 이 선거 안이 반중(反中) 성향 인사의 출마를 막

으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홍콩 내 민주화 시위에 대해 사실상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무원 홍콩·마카오사무관공실 대변인은 28일 중국정부는 홍콩 내에서 범죄를 파괴하고 사회안정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경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 등이 29일 보도했다. 또 “홍콩당국이 이번 사안을 ‘의법치리’ 함으로써 홍콩의 사회안정을 수호하고 시민의 신체안전과 재산안전을 도모할 것으로 충분히 믿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 서둘러야

日 여론조사 7% 상승…50% 육박

일본 언론이 벌인 여론조사에서 한일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응답이 한 달 사이에 7% 포인트 상승하며 50%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26~28일 공동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제2차 아베 정권 출범(2012년 12월) 이후 한차례도 열리지 못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응답이 46%로 집계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응답(42%)보다 많았다.

이는 8월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양상이 ‘역전’된 것이다. 닛케이 등의 지난달 조사 때는 ‘한일 정상회담을 빨리 열어야 한다’는 답(39%)보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47%)’는 답이 많았다.

최근 기사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국, 중국과 외무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환경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또 북한이 ‘늦어름~초가을’로 조율했던 일본인 납치 피해자를 재조사한 결과의 1차 보고를 미룬 상황과 관련, ‘북한에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이대로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응답(30%)을 크게 웃돌았다.

원전 재가동에 대해서는 반대(53%)가 찬성(34%)보다 많았고 아베 내각 지지율은 지난 3월 개각 직후보다 7% 포인트 떨어진 53%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中 룽징시에 운동주연구회 설립

시인 운동주(尹東柱·1917~1945)의 출생지인 중국 지린(吉林)성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룽징(龍井)시에서 그의 작품세계를 기리고 업적을 알리기 위한 사단법인 룽징운동주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설립됐다.

29일 길림신문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룽징 출신 중국 교포 문인과 학자, 언론인 등이 주축이 된 연구회는 지난 27일 룽징시 문화방송신문출판국 주최로 연구회 설립식을 가졌다.

연구회는 장편소설 ‘시인 운동주’의 저자인 동포 소설가 김혁 씨가 초대 회장을 맡았으며 운동주의 출생·사망일인 12월 30일, 2월 17일에 매년 정기적으로 현지에서 기념행사를 열 계획이다. 또 운동주 전기·평전 출간, 운동주 및 주변 인물들에 대한 연구·자료수집, 운동주 백일장 및 시 낭송회 개최, 다큐멘터리 등 운동주 관련 영상물 제작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설립식에는 운동주 시인의 유가족 대표와 룽징시 정부 관계자, 김병민 연변대 전 총장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연변의 동포 문인들은 2010년 룽징 중학교와 연지(延吉)시인공원에 운동주 시비(詩碑)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현지 추모사업을 벌여왔다.중국 정부는 2012년 350만 위안(6억 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명동춘의 운동주 생가를 복원하고 표지석, 시비, 기념관 등을 세웠다. /연합뉴스

美 IS 공습, 터키 국경까지 확대

시리아 가스플랜트도 공격…IS·정부군 전기공급 영향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전선이 시리아 내 ‘이슬람 국가’(IS) 공습 범위를 터키와 접경한 지역까지 확대하고 IS가 장악한 시리아 최대 규모의 가스플랜트도 공격했다.

AFP통신은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를 인용, 국제연합전선이 28일(현지시간) 밤 IS가 장악해온 시리아 최대 가스시설인 동부 데이라에조르주(州) 코네코 가스플랜트에 처음으로 공습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코네코 가스플랜트에 대한 공습은 시리아 정부군에도 타격이 될 것

으로 보인다고 AFP는 지적했다.

IS는 이곳에서 생산한 가스를 정부군이 장악한 중부 흡스주의 잔다르 발전소에 공급하고 반대급부로 전기를 받아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코네코 가스플랜트의 가동이 중단되면 IS와 정부군 장악지역 곳곳에 전기 공급이 끊긴다.

미국 중부 사령부는 이날 미군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와 함께 시리아 북부 락카주의 IS가 운영하는 모듈식 정유시설 4곳을 공습했다고 밝혔다.

미군과 아랍 동맹국들은 전날에도 시리아 북부 아인알아랍(쿠르드식 지명은 코바니)와 알하사카, 민베즈 등 터키와 국경을 맞댄 지역의 IS 시설들을 공습했다.

미군은 IS가 지난 열흘간 장악한 코바니 인근의 IS 건물과 무장차량 2대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SOHR는 이 과정에서 IS 대원 3명 이상이 사망하고 민간인 6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미국과 동맹국은 지난 22일 시리아에서 첫 공습에 나서면서 락카와 동부 데이라에조르 지역을 집중 타격했으나 이번 주말에 처음으로 터키 접경지역을 공격했다.

전날 공습지역에 새로 포함된 코바니는 시리아 쿠르드족 핵심 도시로, 지난 16일 IS가 이 도시를 공격한 이래 16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IS는 미국 주도의 공습에도 코바니에서 쿠르드족 민병대인 인민수비대(YPG)에 대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날 IS가 수도라고 자처

한 락카에서도 공습을 계속해 비행장과 주둔지, 훈련캠프를 추가로 파괴했다. 또 이라크 북부에서도 IS에 대한 공습을 계속해 IS의 무장차량 4대와 전투진지 1곳이 파괴됐다고 밝혔다.

영국은 전날 키프로스 공군기지에서 토네이도 전투기 2대를 발진시키는 등 7시간에 걸친 첫 작전을 마쳤다.

이러한 가운데 이라크 정부군과 시아파 민병대는 전날 바그다드 북동부 디알라주의 무크다디아담을 IS로부터 탈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IS와 시리아 최대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전선 간의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동안 IS와 평행한 긴장관계였던 알누스라 전선은 미국과 아랍국가들의 시리아 공습이 “이슬람에 대한 전쟁”이라며 보복을 경고했다.

가디언은 IS가 알누스라의 지원을 받게된다면 미군 주도의 공습에 따른 전투력의 손실도 상당 부분 완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비엔날레공원에서 누리는 분양같은 임대아파트!

용봉동 도나우타운

문의062 **264-7789**

시행 | 주 | 심산건설

전용면적 **59㎡**

228세대

전 세대 남향배치

- 입주전 베이커아웃 실시
- 주방·욕실 천장에 매립형 환풍시스템 설치
- 욕실 내부 환풍기 타이머스위치 설치
- 건식욕실 (인방)
- 에어컨 등 화장실 전용 출입문 설치
- 반2개 및 주방 확장형
- 안방 블라인드장 설치

용봉동 도나우타운 현장

북부경찰서

광주현대병원

용봉IC

롯데 하이마트

용봉초등학교

농협

전남대학교

광주은행

전남사대부설 고등학교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용봉초등학교

도나우타운 모델하우스

전대사거리

M/H 전대사거리 모야엘가 주택전사관 2층

오피스 기념 **김장훈 팬싸인회**

10월17일 OPEN